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리학

박삼옥 외 공저, 2002,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 탐색, 서울: 도서출판 한울.

최 병 두*

지리학은 매우 오래된 학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에라토스테네스나 스트라보의 “지리학”에서부터 현대의 실증주의적 지리학과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지리학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왔다. 학문의 역사가 길다는 것은 그 만큼 인간생활에 기본적인 지식임을 의미하지만, 또한 사회변화에 그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의미한다. 즉, 학문으로서 지리학의 발전적 변화는 지리학자들의 단순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학문적 열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학자들의 열정은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그 시대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 지난 50여 년 간 우리 사회와 공간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해방과 더불어 국토 분단과 전쟁을 겪었으며,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근대화 과정은 우리의 공간구조를 급속하게 변화시켰다. 특히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를 열어나가게 된 지난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이른바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의식과 지식도 크게 변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학문분야들처럼 지리학도 서구의 근대적 지식체계를 받아들이는 한편, 우리 사회공간의 변화를 반영한 학문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은 여전히 다른 학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이 더딘 분야, 또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저조한 분야로 남아 있음을 지리학자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리학의 이러한 저발전의 원인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 동안에 지리학이 우리 사회공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변화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포함하여)하지 못했으며, 또한 이로 인해 그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한 산물이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박삼옥 교수를 포함하여 모두 15명의 연구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출판된 이 책은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진입과정에서 지리학이 중시해야 할 대표적인 주제”를 모은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책은 지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수

리학의 전통적인 전공분야들에 따라 각 장들을 구분하면서도, 해당 전공분야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전환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선도할 수 있는 14개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이 책은 전통적인 지리학의 개념 정의처럼, “지리학은 ... 인간의 생활공간, 즉 지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임을 천명한다. 그러나 지리학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주제들에 얽매이기보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지리학의 중요성을 ... 보여주고 지리학의 기초개념을 응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지리학의 중요성은 이 책의 서문에서 월드컵의 개최와 관련된 지리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나가는 과정에서 흥미롭게 예시된다.

각 장별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엿보인다. 예로, 제1장 지도학의 분야에서는 고산자 김정호가 붓 대신 컴퓨터 마우스를 쥐도록 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서 지리학이 지리정보과학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지형학 분야에서는 전통적 자연인식 체계에서 출발한 백두대간과 근대 자연과학에 근거한 태백산맥이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이 두 개념에 관한 최근 논쟁을 재미있게 재해석하고 있다. 또한 제3장 해안습지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해안지형학이 아니라 갯벌 생태학과 더불어 사회정의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해되며, 기후학에 관한 제4장은 단순한 대기의 자연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생활 속의 기후, 나아가 문명의 흥망성쇠와 인간사회의 변동을 결정짓는 기후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제5장의 도시화에 관한 공간적 이해는 최근의 광역도시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시 및 통합시로의 행정제도 변화와 관련되며, 제6장

에서는 농촌공간은 도시화되지 않은 채 단지 남겨진 공간이 아니라 산업화와 탈산업화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으로 설명된다. 제7장에서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제공간은 기술혁신에 따라 ‘잘사는 국가와 못사는 국가’로 차별화되며, 혁신 네트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의 테헤란밸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지역성장을 추동하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강조된다. 제8장에서는, 과거의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이 관문도시의 발달과 그 내부 모습을 변화시킨 것처럼,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오늘날 도시의 구조와 공간조직을 현격히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9장에서는 이러한 정보화와 더불어 세계화는 ‘세계도시’라는 새로운 도시체계와 특성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결과로 도시 내 및 도시간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지역의 변화는 제10장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인간이 생활하는 장소에 관한 고찰을 통해 예시될 수 있다. 지역들은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공통점/차이점 및 변화/불변 속에서 지역의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제11장에서 고지도는 땅과 하늘 또는 세계와 인간을 담은 그릇으로서 이해되고, 제12장에서 문화경관은 상징 및 권력의 장으로 재해석된다. 특히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사이에 존재하는 ‘역’(闕)공간이나 영화나 TV 속의 가상경관도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를 배경으로 제13장에서는 지역주의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제14장에서는 국토발전의 미래상이 제시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지식정보사회를 배경으로 우리 사회공간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현

상이나 주제들을 다룬 것이며, 따라서 책의 제목에서처럼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리학의 탐구”를 성공적으로 시도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지리학에 대한 새로운 주제와 연구 내용을 요구하는 학생들이나 연구자들, 그리고 일반 독자들을 상당히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서의 출판과 이를 통한 교육 및 응용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리적 지식으로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모든 책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책 역시 어떤 문제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우선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에 의한 공동연구라는 점에서 각 장의 서술방식이나 사용하는 용어, 그리고 서술의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임으로써 독자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지식정보사회를 배경으로 새롭게 제기되

는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제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지리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한편, 실제 흥미롭거나 새로운 주제들(예로 정치공간, 환경문제 등)을 놓친 것도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이 책을 교재로 삼고자 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과정에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 다소 난처해진다. 왜냐하면, 교양지리학으로는 다소 어렵고, 지리학 전공기초에 이용하기에는 전통적인 지리학의 기본 개념이 생략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지리학의 어떤 한 전공과목에서 사용하기에는 주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 책이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지는 탁월한 의의와 지리학의 발전에 대한 커다란 기여를 결코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2002년 12월 15일)